

글로벌 제주를 위한

#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30



#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日本經濟新聞

※ 대상 기간: 2025.02.27.-2025.03.05

## □ 주간 해외정책 동향

### ■ 중국

- 선전,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세 가지 계획 발표 ..... 7
- 텐진, 첫 탄소 계량 센터 설립 승인 ..... 7
- 저장성, 탄소 배출 이중 통제 추진 ..... 7
- 고성능 수소 생산 장비의 규모화 상용 문제 해결 ..... 8
- 상하이, 관광산업 고품질 발전을 위한 3개년 행동계획 발표 ..... 9
- 베이징, AI 기술의 산업 응용 전방위 추진 ..... 9
- 해양 에너지, 규모화 이용 단계 진입 ..... 10
- 공업 증진지, 수소 에너지 산업 발전 촉진 ..... 10
- 중국, 인공지능 산업 혁신 추진 ..... 11
- 상무부,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전면 시행 예정 ..... 12

### ■ 일본

- 오이타현, 관광 전문가 회의서 숙박세 도입 검토 제안 ..... 12
- 가나가와현 1월 유효구인배율 0.90배로 5개월 만에 하락 ..... 13
- 나고야 부동산 개발, 도쿄·오사카보다 뒤처져 규제 재검토 위한 장애물 조사 착수 ..... 14
- 홋카이도 내 지자체들, 하수도관의 지속 가능한 관리 모색 ..... 14
- 중부 3현의 크루즈선 기항, 과거 최다 144회 기록으로 외국인 수요 증가 ..... 15
- 돗토리·나가사키, 특정기능 외국인 인재 농업 릴레이 근무로 번한기 차이 활용 ..... 16
- 도쿄도내 중소기업, 27%가 국제 진출로 수출이나 거점 설치 추진 ..... 16

- 미야기현, 드론 회사와 연계 협정 체결로 재해 시 물자 수송 협력 .....	17
- 시즈오카시 내 새로운 승합 서비스 실증 확산, 다수 기업 연계와 야간 운행 포함 .....	18
- 교토의 인바운드, 시가현 숙박업 호황으로 1월 구인 6% 증가 .....	18
- [국제금융센터] 1월 FOMC 의사록 주요내용 및 시사점 .....	2
- [보험연구원] 글로벌 재보험시장 이슈와 전망 .....	2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 30년, 지방 세정의 역할과 발전방향 .....	3
<b>■ 태국</b>	
- 태국, 전국적 단속으로 불법 이민자 약 9,500명 체포 .....	20
- 태국, 소프트파워 활용한 중국인 관광객 800만 명 유치 목표 .....	20
- 태국, 장애인 110만 명 대상 무료 인터넷 서비스 개시 .....	21
<b>■ 필리핀</b>	
-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과 개발 협력 파트너십 강화 .....	21
- 필리핀, OECD 원자력기구와 원자력 에너지 개발 협력 강화 .....	22
<b>■ 베트남</b>	
- 베트남, 뉴질랜드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	22
<b>■ 캄보디아</b>	
- 캄보디아, 대중국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 .....	23
- 캄보디아, EU·멕시코와 경제 협력 강화 .....	23
- 캄보디아, 인도와 문화 협력 강화 추진 .....	24
<b>■ 인도네시아</b>	
-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위한 국부펀드 출범 .....	24

#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 중국

- ✓ 선전시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세 가지 작업 방안 공식 발표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혁신 강조, 기업 수요 중심 자원 배치 체계 구축, 각 경영 주체의 합법적 권익 보호와 외자기업, 민영기업, 스타트업의 국제 자원 획득 지원에 중점을 둔 국제화 환경 최적화 방안 추진
- ✓ 톈진시는 계량감독검정과학연구원과 국가석유천연가스관망그룹 과학기술연구원이 공동 신청한 탄소계량센터 설립 승인. 정부 결정, 산업 업그레이드, 시장 거래에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계량 지원 제공 및 석유 천연가스 생산 산업 중심의 '오중융합' 핵심 구조 채택
- ✓ 저장성 정부 판공청은 '저장성 탄소 배출 이중 통제 업무 추진 몇 가지 조치' 발표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자원 순환 이용 등 녹색 '저탄소 산업과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 가속화 추진
- ✓ 샤먼대학교 화학화공학원 타오화빙 부교수 연구팀은 양성자 교환막 수소 생산 전해조 연구 개발의 획기적 진전. 국가에너지국 첫 중대 기술 장비 승인 획득 및 시장 진출 성공으로 신장 첫 종합 에너지 스테이션 적용과 8,000만 위안 신규 주문 획득
- ✓ 상하이시 인민정부 판공청은 '상하이 관광산업 고품질 발전 3개년 행동 계획(2025-2027년)' 발표 우수 자원 활용, 전환 발전 추진, 산업 체계 완비를 통한 중국 입국 관광 제1관문, 도시 관광 최우선 목적지, 문화 관광 심층 융합 시범구 조성 목표 수립
- ✓ 제3회 베이징 인공지능 산업 혁신 발전 대회는 '텐공' 인형 로봇 등장과

베이징 먼터우거우구 징시 지벨리 모델 최적화 공장 가동 시작. “좋은 사용성, 쉬운 사용성, 사용 의향성 - 혁신적 돌파구로 AI의 다양한 산업 적용 가속화“ 주제의 대회 개최

- ✓ 자연자원부는 해양 에너지 규모화 이용 추진 계획 발표. 2030년까지 해양 에너지 설비 규모 40만 킬로와트 달성 목표와 다수의 해도 다중 에너지 상호 보완 전력 시스템, 해양 에너지 규모화 시범 공정 건설, 강한 기술 연구개발 능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양 에너지 기업 육성 추진
- ✓ 중국 에너지법은 정식 시행과 수소 에너지 개발 이용 및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명시. 중국 수소 에너지 산업의 가속화된 육성과 제조, 저장 운송, 충전, 연료 전지 등 주요 기술의 지속적 돌파, 기초 시설 건설 가속화와 산업 규모 확대의 전개
- ✓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R1 신모델 출시로 인한 글로벌 주목. R1 모델의 복잡한 과학 문제 해결 '추론' 능력과 OpenAI 첨단 모델과 대등한 성능, 중국 산업계는 딥시크와의 연계 응용을 중점 추진
- ✓ 상무부 뉴스 대변인 허야등은 서비스 무역과 서비스 소비 발전의 무역 안정화 및 내수 확대 중요성 강조.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전면 시행 및 단계적 개방 안정적 추진 계획,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과의 적극적 접목 추진 의사

## ○ 일본

- ✓ 오이타현 관광 전략 관련 전문가 회의는 급증하는 인바운드 등의 수용 체제 강화를 위한 관광지역 만들기 법인 '투어리즘 오이타'의 조직 개편 제안. 안정적 재원으로서의 숙박세 등 도입 검토 보고서 발표와 이에 따른 현의 숙박세 등 도입 가능성 검토 시작
- ✓ 가나가와 노동국은 1월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의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한 0.90배 기록 발표. 계절지수 재검토로 인한 과거 5년 수치 개정으로 5개월 만의 하락, “일부 약세가 남아있으나 회복을 향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이라는 전월과 동일한 고용 정세 판단 유지

- ✓ 나고야시는 부동산 개발 장애물이 되는 조례와 시행세칙 재검토 착수. 도쿄도, 오사카부, 후쿠오카시와 비교해 개발 장애물이 되는 절차나 조례에 대한 건설사와 개발업체 청취 조사 실시, 리니어 중앙신칸센 개통과 2026년 가을 아이치현 개최 아시아경기대회를 고려한 나고야 개발 투자 유치 환경 정비 추진
- ✓ 홋카이도 내 지자체들은 하수도관 지속적 유지관리 방안 모색 활동 전개. 넓은 면적과 겨울철 적설·결빙이라는 홋카이도 특유의 사정으로 인한 도내 하수도관 유지관리의 높은 난이도 문제, 효율적인 수명 연장 공법과 관민 연계를 통한 운용 검토로 하수도 인프라 보호 노력
- ✓ 중부지방정비국은 2024년 중부 3현(아이치, 시즈오카, 미에)으로의 크루즈선 기항 횟수(속보치) 전년 대비 38% 증가한 144회 발표.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최다 기록과 외국 선사의 기항 횟수 15배 증가한 116회에 이르는 등 활발인 인바운드 수요가 견인한 증가세
- ✓ JA 돗토리현 중앙회는 '특정기능'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 파견회사 에누와 연계한 특정기능 인재 돗토리·나가사키 양현 JA 수용 사업 2025년 시작 계획 수립. 양현 주요 작물 생산의 번한기 차이에 착안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인재의 여름과 가을은 돗토리, 겨울과 봄은 나가사키 근무 방식 도입
- ✓ 도쿄상공회의소는 도쿄 23구 중소·소규모 기업 대상 조사 결과, 수출이나 거점 설치 등으로 사업을 국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기업 비율 27.1% 확인. 국내 시장이 축소 경향에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도 해외 진출 필요성 증대, 2024년 7~8월에 12,000개 기업 조사 중 1,618개 기업 응답 수집
- ✓ 미야기현은 드론 판매회사 악시아와 드론 운용을 담당하는 JDRONE과의 연계 협정 체결. 재해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식량이나 물 등 구호 물자 수송 협력 내용 포함과 재해 발생 시 현이 협정 체결한 2개 회사에 요청해 고립된 지역 등에 드론을 사용한 구호 물자 운송 계획 수립

- ✓ 시즈오카시는 새로운 이동 수단 실증 실험 잇달아 진행. 고령자 대상 기업 부담 송영 서비스와 인공지능 활용 심야 승합 택시 제공 목표 포함, 모두 스타트업 지원이나 협업을 목표로 한 시의 비즈니스 콘테스트가 계기가 된 시내 실험 장소에서의 신흥 아이디어 조기 도입 및 서비스 실현 추진
- ✓ 시가 노동국은 1월 신규 구인 통계에 따른 시가현 내 숙박 관련 구인의 큰 폭 증가 발표. '숙박업, 음식 서비스업'이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한 557명으로 전월(18% 증가)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와 린넨류를 세탁하는 파트타임 직원 구인도 급증하는 상황 전개

## ○ 태국

- ✓ 태국 왕립경찰은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적 불법 이민자 단속 실시로 9,532명 체포. 타나 추잉 경찰청 총경 주도 작전의 불법 이민자와 국경 범죄 근절 초점, 불법 입국 6,239명, 비자 체류 기간 초과 875명, 불법 취업 463명 검거 성과
- ✓ 태국 관광청은 2월 26일 '소프트파워' 활용 및 '필수 방문 도시' 홍보를 통한 2025년 중국인 관광객 800만 명 유치 목표 전략 발표. 타파니 키앗 파이불 태국 관광청장의 관광시장 확대, 방문 빈도 증가, 각 지방 방문 촉진 중점 신규 전략 설명
- ✓ 태국은 2월 1일 전국 110만 명 이상 장애인 대상 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시작. 사회개발인간안보부, 국가방송통신위원회, 방콕텔링크 공동 추진 프로그램의 온라인 학습과 자기 계발을 통한 장애인 역량 강화 목표 설정

## ○ 필리핀

-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2월 26일 마사토 칸다 신임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 만남에서 ADB의 필리핀 가장 중요한 파트너 강조. 필리핀과 ADB의 오랜 파트너십 관계 언급 및 국가 발전

부문에 대한 ADB 기여의 긍정적 평가 표명

- ✓ 윌리엄 매그우드 4세 OECD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2월 24일 필리핀 에너지부 원자력 에너지 개발 전략 지원 준비 표명. 필리핀 방문 기간 OECD NEA와 필리핀 간 긍정적 관계 구축 의지 표현 강조

## ○ 베트남

- ✓ 베트남과 뉴질랜드는 2월 26일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양국 수교 50주년 기념 베트남 방문한 크리스토퍼 러슨 뉴질랜드 총리의 CSP 협정 서명과 양국 관계 격상을 통한 협력 범위 확대 의미 제고

## ○ 캄보디아

- ✓ 라오 응우은 앙 캄보디아 광저우 총영사관 상무관은 중국유엔조달협회 광저우 개막식에서 캄보디아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 확대 의지 표명. 양국 무역 관계 강화 및 캄보디아 농산물의 중국 시장 접근성 향상 목표 설정
- ✓ 로스 세일라바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국무장관은 2월 26일 EU와 멕시코 명예영사들과 무역·경제 관계 강화 위한 회담 주제. 캄보디아와 EU, 멕시코의 경제 협력 강화와 투자 기회 모색에 대한 의지 표명 전달
- ✓ 푸영 사코나 캄보디아 문화예술부장관은 2월 25일 반탈바우나 바윗룽 신임 주캄보디아 인도 대사와의 만남에서 문화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양국의 오랜 문화적 유대관계 강조 및 협력 강화 합의 도출

## ○ 인도네시아

-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월 24일 새로운 국부펀드 '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라' 출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목표 펀드의 9,000억 달러 이상 자산 운용을 통한 인도네시아 선진국 진입 촉진 목표 설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한민국	<p>○ 선전,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세 가지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전시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세 가지 작업 방안 공식 발표.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혁신 강조와 기업 수요 중심의 자원 배치 체계 구축. 각 경영 주체의 합법적 권익 보호 추진</li> <li>- 국제화 환경 최적화 방안의 외자기업, 민영기업, 스타트업의 국제 자원 획득 지원 초점. 선전의 국가 첫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도시로서의 위상. 작년 신규 등록 경영 주체 56.2만 개 및 총 440.4만 개의 전국 1위 기록</li> <li>- 선전의 중소기업 용자 지원을 위한 '원구대' 혁신 모델 시범 운영. 외국인 투자 확대 정책으로 작년 21.7% 증가한 9,738개 신규 외자기업 설립. 통신, 교육, 의료, 인공지능 등 분야의 개방 확대 및 연간 500억 위안 외자 유치 목표</li> </ul>
	<p>○ 텐진, 첫 탄소 계량 센터 설립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텐진시 계량감독검정과학연구원과 국가석유천연가스관망그룹 과학기술연구원 공동 신청한 텐진시 탄소계량센터 설립 승인. 정부 결정, 산업 업그레이드, 시장 거래에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계량 지원 제공</li> <li>- 센터 건설의 석유천연가스 생산 산업 중심 및 '오중융합' 핵심 구조 채택. 탄소계량 기술 솔루션 연구, 탄소계량 감독관리 체계 구축, 탄소계량 가치 전달 서비스 능력 향상, 탄소계량 검증평가 플랫폼 구축, 탄소계량 전문가 인재팀 구성</li> <li>- '기술개발-표준제정-산업서비스-데이터관리-인재육성' 통합 탄소계량 능력 체계 구축. 탄소 배출의 '측정가능, 보고가능, 검증가능' 지원과 정부 및 산업의 '이중탄소' 경로 수립에 중요한 근거 제공. 향후 타 영역으로의 점진적 확대 추진</li> </ul>
	<p>○ 저장성, 탄소 배출 이중 통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장성 정부 판공청의 '저장성 탄소 배출 이중 통제 업무 추진 몇 가지 조치' 발표.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b>중국</b>	<p>자원 순환 이용 등 녹색 저탄소 산업 대대적 발전.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화석 에너지 발전 측면에서 '광전+' 행동 추진 및 원자력, 해상 풍력 프로젝트 건설 질서 있는 추진. 바이오매스 에너지, 지열, 해양 에너지 등 신에너지 대대적 발전. 2025년 말까지 풍력 태양광 600만 킬로와트, 원자력 100만 킬로와트 신규 설치 계획</li> <li>- 중점 산업 개조 업그레이드를 위한 산업 중점 영역 에너지 효율 표준 선도 행동 심층 실시. 에너지 효율 기준 수준 이하 저장 프로젝트의 규정 기한 내 개조 업그레이드 요구. 2025년 말까지 석유 정제, 에틸렌, 가성소다 등 25개 영역의 기술 개조 또는 퇴출 완료 예정</li> </ul>
	<p><b>○ 고성능 수소 생산 장비의 규모화 상용 문제 해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샤먼대학교 화학화공학원 타오화빙 부교수 팀의 양성자 교환막 수소 생산 전해조 연구 개발의 획기적 진전. 국가에너지국 첫 중대 기술 장비 승인 획득 및 시장 진출 성공. 신장 첫 종합 에너지 스테이션 적용 및 8,000만 위안 신규 주문 획득</li> <li>- 양성자 교환막 수전해의 현재 세 가지 주류 수전해 수소 생산 기술 중 하나로서의 위치.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 후 화학 반응과 전기화학 반응을 통한 수소 생산 방식. 반응 속도가 빠르고 환경 친화적인 장점 보유. 귀금속 이리듐 촉매제 의존으로 인한 대규모 상업 응용 장애물 존재</li> <li>- 타오화빙 팀의 대량 생산 가능하고 고작업 조건 활성을 가진 핵-셸 구조 촉매제 개발. 장비의 희소 귀금속 이리듐과 백금 함량 감소. 최적화 설계와 공정 개선을 통한 새 장비의 작업 효율과 수명 크게 향상. 전체적인 수소 생산 비용 감소로 시장 진출의 핵심 문제 해결</li> </ul>
	<p><b>○ 상하이, 관광산업 고품질 발전을 위한 3개년 행동계획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이시 인민정부 관공청의 '상하이 관광산업 고품질 발전 3개년 행동계획(2025-2027년)' 발표. 우수 자원 활용, 전환 발전 추진, 산업 체계 완비를 통한 중국 입국 관광 제1관문, 도시 관광 최우선 목적지, 문화관광 심층 융합 시범구 조성 목표</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b>중 화 인 민 공 화 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 수준의 관광 랜드마크 건설 추진. 상하이 국제관광리조트구, 세산 국가관광리조트구 건설 가속화. 세계급 테마파크 매트릭스의 품질 향상, 상하이 국제 크루즈 관광리조트구 건설, 충밍 세계급 생태관광 목적지 건설 등 계획</li> <li>- 문화관광 심층 융합 추진을 통한 '당의 탄생지'를 상징으로 하는 홍색 문화 관광 상품 최적화 향상. '일강일하', '건축 가독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해파이 문화 관광 상품, 주자각, 난샹, 스칭 등을 대표로 하는 상하이식 강남 고촌 관광 상품 개발</li> </ul>
	<p><b>○ 베이징, AI 기술의 산업 응용 전방위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회 베이징 인공지능 산업 혁신 발전 대회에서 '텐공' 인형 로봇의 등장과 베이징 먼터우거우구 징시 지밸리 모델 최적화 공장 가동 시작. “좋은 사용성, 쉬운 사용성, 사용 의향성 - 혁신적 돌파구로 AI의 다양한 산업 적용 가속화“ 주제의 대회 개최</li> <li>- 중국과학원 원사 니광난의 공간 지능 기술의 물리적 세계와의 융합 및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 강조. 가상-실제 상호작용 기술의 돌파구를 통한 중국의 로봇, 스마트 시티 등 분야에서의 세계적 솔루션 제공 가능성 제시. DeepSeek의 저비용 AI 발전 경로 개척의 의의</li> <li>- 베이징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 약 2,400개와 사회 용자액 약 440억 위안의 전국 40% 점유율. 등록 및 온라인 대형 모델 105개로 전국의 약 절반 차지. 법률, 문화, 교통, 의료 등 수직 응용 영역에서의 표준 응용 장면 구축과 인공지능의 산업 응용 지원 계획</li> </ul>
	<p><b>○ 해양 에너지, 규모화 이용 단계 진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자원부의 해양 에너지 규모화 이용 추진 계획 발표. 2030년까지 해양 에너지 설비 규모 40만 킬로와트 달성 목표. 다수의 해도 다중 에너지 상호 보완 전력 시스템과 해양 에너지 규모화 시범 공정 건설. 강한 기술 연구개발 능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양 에너지 기업 육성</li> <li>- 해양 에너지 개발 이용의 신질 생산력 발전 촉진과 동부 연해 지역, 원격 해도, 심원해 시설의 전력 부족 완화 효과.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 해양 경제 발전, 해양 강국 건설에 대한 중요한 의의. 해양 에너지 자원 조사 평가 강화와 자원 데이</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b>중국</b>	<p>터베이스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자원부 등 6개 부처의 '해양 에너지 규모화 이용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 공동 발표. 각 에너지 유형별 규모화 시범 공정 배치와 100메가와트급 조류 에너지 중점 공정 실시. 파도 에너지의 규모화 이용 추진과 해상 풍력발전소의 파도 에너지 개발 장려. 해도 다중 에너지 상호 보완 응용 개발</li> </ul>
	<p>○ <b>공업 중진지, 수소 에너지 산업 발전 촉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의 정식 시행과 수소 에너지 개발 이용 및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명시. 중국 수소 에너지 산업의 가속화된 육성과 제조, 저장 운송, 충전, 연료 전지 등 주요 기술의 지속적 돌파. 기초 시설 건설 가속화와 산업 규모의 확대</li> <li>- 장쑤성 장자강의 수소 에너지 '제조, 저장, 운송, 사용' 산업 체인 형성과 확장. 수소 연료 견인차의 항구 작업, 수소 에너지 버스의 도시 운행, '수소 광 상호 보완' 지능형 마이크로 그리드의 새로운 '충전기' 역할. 장자강에서의 수소 에너지 응용 장면 확대</li> <li>- 수소 에너지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 장거리 운송에서의 이점 활용. 공공 교통, 도시 배송, 냉장 운송, 간선 물류 등 분야 적용. 장자강시의 73대 수소 에너지 버스, 5대 수소 연료 항만 전용 견인차, 65대 수소 에너지 대형 트럭, 500여 대 수소 에너지 자전거 운행 현황</li> </ul>
	<p>○ <b>중국, 인공지능 산업 혁신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R1 신모델 출시로 인한 글로벌 주목. R1 모델의 복잡한 과학 문제 해결 '추론' 능력과 Open AI 첨단 모델과 대등한 성능. 개발 비용은 후자의 일부에 불과하며 API 접근 비용은 13분의 1로 저렴한 특징</li> <li>- 중국의 저비용, 확장 가능한 AI 응용 프로그램 개발 추진을 통한 현대화 과정 가속화 목표. 기차 정시 운행 보장, 어류 개체군 동태 모니터링, 편리한 원격 의료 서비스 등 AI 기술의 실용화 추진. 알리바바와 '산업 대형 모델 실험실' 설립을 통한 비즈니스 및 산업 프로세스 최적화</li> <li>- 중국의 대형 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 스택 구축. 인공지능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 딥시크 팀의 인</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b>중국</b>	<p>간과 유사한 추론 및 분석 능력을 AI에 부여하는 혁신적 접근으로 반도체 메모리 사용량 감소와 개발 비용 대폭 절감. 중국 교육부의 집중 공략 대형 플랫폼 창설</p> <p>○ <b>상무부,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전면 시행 예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뉴스 대변인 허야동의 서비스 무역과 서비스 소비 발전의 무역 안정화 및 내수 확대 중요성 강조.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전면 시행과 단계적 개방 안정적 추진 계획.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과의 적극적 접목 추진</li> <li>- 중국 서비스 무역의 빠른 성장 유지와 2024년 전국 서비스 수출입 총액 7.5조 위안 달성. 미국 달러 기준 처음으로 1조 달러 돌파. 서비스 소매액 6.2% 증가와 주민 서비스성 소비 지출 7.4% 증가. 소비 지출 증가에 대한 63% 기여율</li> <li>- 국무원 상무 회의의 서비스 소비 고품질 발전 추진과 서비스 소비 품질 헤민 행동 실시 제안. 서비스 소비 장면 혁신, 업태 융합, 산업 집적 지원. 문화관광, 외식숙박, 양로돌봄, 디지털 소비 등 영역 표준 완비. '대외 개방'과 '대내 개방' 방법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공급 증가</li> </ul>
<b>일본</b>	<p>○ <b>오이타현, 관광 전문가 회의서 숙박세 도입 검토 제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이타현 관광 전략 관련 전문가 회의의 급증하는 인바운드(방일 외국인) 등의 수용 체제 강화를 위한 관광지역 만들기 법인(DMO) '투어리즘 오이타'의 조직 개편 제안. 안정적 재원으로서의 숙박세 등 도입 검토 보고서 발표. 이에 따른 현의 숙박세 등 도입 가능성 검토 시작</li> <li>- 보고서의 지자체 파견자 중심의 '투어리즘 오이타' 체제 대폭 개선 요구. 정규직 직원 확보 및 전문 인재 등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프로모션 전략 담당 조직으로의 변화 필요성 방향 제시. 투어리즘 오이타의 관광 전략 주도 역할 수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 필요성 지적</li> <li>- '수익자 부담 관점을 고려한 특정 재원(숙박세, 입욕세 등)의 도입을 향한 검토 추진의 중요성' 강조. 전문가 회의의 쿠와타 류타로 부지사를 의장으로 한 구성. 관광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멤버로 2024년 12월 발족한 배경</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b>가나가와현 1월 유효구인배율 0.90배로 5개월 만에 하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나가와 노동국 발표 1월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의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한 0.90배 기록. 계절지수 재검토로 인한 과거 5년 수치 개정으로 5개월 만의 하락. 고용 정세 판단은 “일부 약세가 남아있으나 회복을 향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이라는 전월과 동일한 평가 유지</li> <li>- 유효구인배율의 현내 헬로워크에서 일자리를 찾는 1인당 구인 건수 표시 의미. 전국 헬로워크에서 가나가와현 내 취업 구인을 집계한 취업지역별 유효구인배율은 1.11배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상승. 경기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신규 구인 수(원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3만 7186명</li> <li>- 산업별 신규 구인 수에서 외식·숙박업은 약 2배 증가한 2375명, 서비스업은 12.2% 증가한 6223명으로 인력 부족에 따른 구인 수 증가. 도매·소매업은 21.6% 감소한 2991명으로 6개월 연속 감소. 제조업(6.9% 감소)은 8개월 연속 감소로 “원자재비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이익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 제시</li> </ul>
	<p>○ <b>나고야 부동산 개발, 도쿄·오사카보다 뒤처져 규제 재검토 위한 장애물 조사 착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고야시의 부동산 개발 장애물이 되는 조례와 시행세칙 재검토 착수. 도쿄도, 오사카부, 후쿠오카시와 비교해 개발 장애물이 되는 절차나 조례에 대한 건설사와 개발업체 청취 조사 실시. 리니어 중앙신칸센 개통과 2026년 가을 아이치현 개최 아시아경기대회를 고려한 나고야 개발 투자 유치 환경 정비</li> <li>- 도카이 지방 중심 지역 사업자 2사 이상과 전국 규모 기업 등 총 7사 정도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 시내에서 상업시설이나 오피스빌 건설 경험이 있는 기업과 건설 계획을 세운 후 중단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24년도 내 조사 결과 정리 후 25년도에 개선 검토 예정</li> <li>- 시내 개발 시 장애물이 된 요소와 타 도시보다 절차가 불편하거나 제약을 느낀 항목 조사. 나고야시 개발 검토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 시 사업 전개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요건에 대한 답변 요청. 개발 과제로는 “공개 공지나 공원을 현재보다 이용하기 쉽게 해달라“, “개최 가능한 이벤트가 구마다 달라 알기 어렵다“ 등의 의견 존재</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b>홋카이도 내 지자체들, 하수도관의 지속 가능한 관리 모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홋카이도 내 지자체들의 하수도관 지속적 유지관리 방안 모색 활동. 넓은 면적과 겨울철 적설·결빙이라는 홋카이도 특유의 사정이 겹쳐 도내 하수도관 유지관리의 높은 난이도 문제. 효율적인 수명 연장 공법과 관민 연계를 통한 운용 검토로 하수도 인프라 보호 노력</li> <li>- 총무성의 '지방공영기업 결산상황조사'를 바탕으로 한 하수도관 총연장과 내용연수 50년 초과 하수도관 연장 기반 노후화율 산출. 도내 하수도관의 2023년도 노후화율 11.3%로 전국 평균(7.3%)을 상회하는 수치. 데이터가 있는 도내 약 80개 지자체 중 내용연수 초과 수도관을 가진 22개 지자체 존재</li> <li>-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토츠크 지역의 오키토정(48.6%)이며, 무로란시(46%) 순으로 조사. 아사히카와시는 2월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에서 발생한 도로 함몰 사고 이후 부식 가능성이 높은 맨홀 10곳에 대한 긴급 점검 실시. 아사히카와시의 하수도관 노후화율은 9.2%로 부식이나 파손 가능성이 높은 관로는 국가 지정 주기보다 짧은 4년에 1회 점검 진행</li> </ul> <p>○ <b>중부 3현의 크루즈선 기항, 과거 최대 144회 기록으로 외국인 수요 증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지방정비국의 2024년 중부 3현(아이치, 시즈오카, 미에)으로의 크루즈선 기항 횟수(속보치) 전년 대비 38% 증가한 144회 발표.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최대 기록. 외국 선사의 기항 횟수 1.5배 증가한 116회에 이르는 등 활황인 인바운드(방일 외국인) 수요가 견인한 증가세</li> <li>- 항만별로는 시즈오카현의 시미즈항이 87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나고야항이 40회를 기록. 외국 선사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유 투어 등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 일본 선사의 기항 횟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5년 이후 신조선 계획 등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li> <li>- 중부 3현은 아이치현(나고야항), 시즈오카현(시미즈항), 미에현(유키카이치항, 도바항)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크루즈 관광의 중요한 목적지로 부상. 특히 시미즈항은 후지산 관광의 관문 역할을 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항구로, 항만 시설 정비와 서비스 향상을 통한 크루즈 관광객 유치 노력의 성과</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b>돗토리·나가사키, 특정기능 외국인 인재 농업 릴레이 근무로 변환기 차이 활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A(농협) 돗토리현 중앙회의 '특정기능'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 파견회사 에누(나가사키현 히라도시)와 연계한 특정기능 인재 돗토리·나가사키 양현 JA 수용 사업 2025년 시작 계획. 양현 주요 작물 생산의 변환기 차이에 착안한 프로그램. 외국인 인재의 여름과 가을은 돗토리, 겨울과 봄은 나가사키 근무 방식</li> <li>- 돗토리 측 사업 주체는 중앙회와 전농 돗토리(돗토리시), 돗토리 이나바(동), 돗토리 중앙(쿠라요시시), 돗토리 서부(요나고시)의 JA 그룹 돗토리 산하 5단체로 구성. 에누는 나가사키현과 JA 나가사키현 중앙회(나가사키시) 등이 출자하여 2019년 설립된 기관으로 국가 특정기능 체류자격 제도의 등록 지원 기관</li> <li>- 돗토리의 주요 작물인 락교, 토마토, 배는 특히 대형 산지인 락교와 배가 노지 재배 중심으로 연중 재배하지 않는 특성. 따라서 여름과 가을이 번잡기로 일손 부족하나 겨울에는 적설도 있어 작업이 적은 상황. 나가사키는 딸기, 당근, 귤이 주요 작물로 여름철 농작업 외국인 인재 수용이 필요하지 않은 여건. 이런 상황을 활용한 릴레이 방식 근무 제도</li> </ul> <p>○ <b>도쿄도내 중소기업, 27%가 국제 진출로 수출이나 거점 설치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상공회의소의 도쿄 23구 중소·소규모 기업 대상 조사 결과, 수출이나 거점 설치 등으로 사업을 국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기업 비율 27.1% 확인. 국내 시장이 축소 경향에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도 해외 진출 필요성 증대. 2024년 7~8월에 12,000개 기업 조사 중 1,618개 기업 응답 수집</li> <li>- 추진 내용(복수 응답)에서 가장 많은 것은 '직접 수출'(15.1%)이며, '간접 수출'(10.1%)이 그 뒤를 이었다는 조사 결과. '검토하지 않음·추진하지 않음'은 58.8%로 집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직전 결산기의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 비율은 국제 전 개하는 기업이 40.1%인 반면, 하지 않는 기업은 33.8%로 차이</li> <li>- 과거에 국제 전개했으나 일부 철수 등을 한 기업에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았던 응답은 '수주처의 개척·확보가 곤란'(37.2%)이라는 결과. 국제 전개를 위한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해외 시장 진출이 매출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국제화 중요성 부각</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b>미야기현, 드론 회사와 연계 협정 체결로 재해 시 물자 수송 협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야기현의 드론 판매회사 악시아(미야기현 구리하라시)와 드론 운용을 담당하는 JDRONE(도쿄·신주쿠)과의 연계 협정 체결. 재해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식량이나 물 등 구호 물자 수송 협력 내용 포함. 재해 발생 시 현이 협정 체결한 2개 회사에 요청해 고립된 지역 등에 드론을 사용한 구호 물자 운송 계획</li> <li>- 노트반도 지진으로 고립 마을이 문제화된 것을 계기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실현 목표. 미야기현이 드론을 통한 구호 물자 운반을 목적으로 한 재해 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드론 기술을 적극 활용한 재해 대응 체계 구축 의미</li> <li>- 고립된 지역이나 도로가 차단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긴급 물품을 전달할 수 있는 드론의 장점 활용.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물자 전달을 통한 피해 최소화 노력. 향후 드론을 활용한 재해 대응 모델로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성 예상</li> </ul>
	<p>○ <b>시즈오카시 내 새로운 승합 서비스 실증 확산, 다수 기업 연계와 야간 운행 포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즈오카시에서 새로운 이동 수단 실증 실험 잇달아 진행 중. 고령자 대상 기업 부담 송영 서비스와 인공지능(AI) 활용 심야 승합 택시 제공 목표 포함. 모두 스타트업 지원이나 협업을 목표로 한 시의 비즈니스 콘테스트가 계기. 시내를 실험 장소로 신흥 아이디어 조기 도입 및 서비스 실현 추진</li> <li>- 프락티(도쿄·치요다)가 제안한 '셰어링 무버' 승합 서비스의 실증 실험 진행. 고객 송영을 원하는 다수 기업의 수요를 모아 수송 서비스 제공 방식. 운행 등 비용은 참가 각 사가 부담하여 '많은 기업이 참여할수록 1사 부담이 줄어 저렴하게 송영 서비스 실시 가능'. 승객은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방식</li> <li>- 심야 이동 수단으로는 AI 활용 새로운 방식의 승합 택시 검토. 교통 관련 셰어링 서비스를 다루는 니어미(도쿄·중앙)와 시즈오카 철도 산하 시테크 택시, 시즈오카시가 금·토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시간대 실험 시작. 니어미가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이용 인원 조정과 루트 선택을 AI가 처리하는 효율적 승합 실현 목표</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교토의 인바운드, 시가현 숙박업 호황으로 1월 구인 6%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 노동국 발표 1월 신규 구인 통계에 따른 시가현 내 숙박 관련 구인의 큰 폭 증가. '숙박업, 음식 서비스업'이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한 557명으로 전월(18% 증가)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 린넨류를 세탁하는 파트타임 직원 구인도 급증하는 상황. 인바운드(방일 외국인)가 모이는 교토 시내의 숙박비 급등과 객실 부족으로 일본인 고객이 '옆의 시가로 흘러가고 있다'는 배경</li> <li>- 호텔 린넨류를 다루는 파트타임 직원이 견인하여 '생활 관련 서비스업, 오락업'의 신규 구인 60% 증가한 453명 달성. '숙박업, 음식 서비스업'도 내역을 보면 숙박업 구인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추세. 숙박 관련 구인에 대해 '예년에는 11월 단풍 시즌이 지나면 하락하는 패턴이 많았는데, 올해는 다르다'라는 특이점 존재</li> <li>- 오츠시내 고층 호텔 '비와코 오츠 프린스 호텔'의 1월 숙박자 수 2% 증가, 객실 수입 20% 증가 기록. 홍보 담당자의 '인재 확보를 위해 향후 그룹을 통틀어 임금 인상 등 대우 개선에 힘쓸 방침'이라는 대응 입장. 교토로의 관광·출장 수요가 시가를 윤택하게 하는 구도 형성</li> </ul>
태국	<p>○ 태국, 전국적 단속으로 불법 이민자 약 9,500명 체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왕립경찰의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적 불법 이민자 단속 실시로 9,532명 체포. 타나 추잉 경찰청 총경 주도 작전의 불법 이민자와 국경 범죄 근절 초점. 불법 입국 6,239명, 비자 체류 기간 초과 875명, 불법 취업 463명 검거</li> <li>- 체포된 인원 중 태국인 564명과 미얀마인 4,879명 포함. 당국의 주요 작전을 통한 수류탄과 마약 소지 콜센터 조직 적발. 태국인, 대만인, 필리핀인 체포 및 대만인 용의자의 대만 발부 5건 체포영장 상태 확인</li> <li>- 수린주에서 중국 여권 위조 및 밀입국에 사용된 건물 발견과 13명 용의자 체포. 태국 경찰청장의 정부와 왕립경찰 정책에 따른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 단속과 수사 추진 방침 공표</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p>○ 태국, 소프트웨어 활용한 중국인 관광객 800만 명 유치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관광청(TAT)의 2월 26일 '소프트파워' 활용 및 '필수 방문 도시' 홍보를 통한 2025년 중국인 관광객 800만 명 유치 목표 전략 발표. 타파니 키앗파이블 태국 관광청장의 관광시장 확대, 방문 빈도 증가, 각 지방 방문 촉진 중점 신규 전략 설명</li> <li>- 태국 당국의 사뭇송크람, 랏차부리, 치앙라이 등 10개 도시 전통, 음식, 예술, 문화유산 선보이는 문화관광 캠페인 핵심 사업 추진. 중국어 능통 태국 인플루언서 주도로 샤오홍슈, 웨이보 등 중국 디지털 플랫폼에 '태국 친구가 중국 친구를 안내하는 여행' 관광 테마 홍보</li> <li>- 최근 태국-미얀마 국경 지역 범죄 사건 지속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대태국 방문률 감소 우려. 이번 캠페인의 이러한 우려 완화 목표와 태국, 중국, 미얀마 당국의 국경 인근 사기 조직 해체 및 범죄 예방 협력 진행</li> </ul>
	<p>○ 태국, 장애인 110만 명 대상 무료 인터넷 서비스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의 2월 1일 전국 110만 명 이상 장애인 대상 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시작. 사회개발인간안보부,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방콕텔링크 공동 추진 프로그램의 온라인 학습과 자기 계발을 통한 장애인 역량 강화 목표</li> <li>- 장애인권한강화부(DoEPD) 발급 장애인 카드와 국가복지카드 소지자 대상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최소 20Mbps 속도 무제한 인터넷 무료 제공.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의 기존 휴대전화 번호나 신규 발급 심카드 통한 서비스 이용</li> <li>- NBTC의 1인당 월 107바트(약 4,540원) 인터넷 요금 지원 및 실제 수혜자 확인 위한 사전 등록 필요성. 이번 프로그램의 장애인 교육, 취업, 사회활동 참여 가능 디지털 포용성 강화의 중요한 진전 평가</li> </ul>
필리핀	<p>○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과 개발 협력 파트너십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2월 26일 마사토 칸다 신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만남에서 ADB의 필리핀 가장 중요한 파트너 강조. 필리핀과 ADB의 오랜 파트너십 관계</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p>연급 및 국가 발전 부문에 대한 ADB 기여의 긍정적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르코스 대통령의 최근 수년간 ADB와 파트너십 더욱 공고화 평가 및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 회담에서 필리핀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ADB의 지속적 지원 중요성 재확인</li> <li>- 마사토 칸다 총재의 2월 24일 ADB 총재직 수임과 아사카와 마사츠크 전 총재 사임 후 직위 계승. 1966년 마닐라에서 31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ADB의 현재 아시아 지역 49개국 포함 69개 회원국 보유 상황</li> </ul> <p>○ 필리핀, OECD 원자력기구와 원자력 에너지 개발 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윌리엄 매그우드 4세 OECD 원자력기구(NEA) 사무총장의 2월 24일 필리핀 에너지부(DOE) 원자력 에너지 개발 전략 지원 준비 표명. 필리핀 방문 기간 OECD NEA와 필리핀 간 긍정적 관계 구축 의지 표현</li> <li>- 라파엘 로틸라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의 원자력 프로젝트 비용 상승과 공급망 제약으로 인한 자금 조달 전략 수립 필요성 강조. 필리핀 에너지부의 기존 원자력 에너지 관련 협정 비준에 필요한 요건 충족 등 원자력 에너지 법적·규제적 프레임워크 구축 진전</li> <li>- OECD NEA와 협력 통한 필리핀의 2032년까지 1,200 메가와트(MW) 규모 원자력 발전 달성 기대. 필리핀의 2024년 1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IAEA 마일스톤 접근법 2단계 진입 인정 등 원자력 에너지 분야 긍정적 성과</li> </ul>
베트남	<p>○ 베트남, 뉴질랜드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과 뉴질랜드의 2월 26일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체결. 양국 수교 50주년 기념 베트남 방문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의 CSP 협정 서명. 양국 관계 격상을 통한 협력 범위 확대 의미</li> <li>- 양국의 향후 1년간 정치 교류, 국방협력, 해양 관리, 경제 무역 및 투자, 기후변화, 과학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 분야 협력 강화 위한 공동 실행 계획 수립 합의. 이번 협력을 통한 뉴질랜드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 기회 확대 기대</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릭슨 총리의 뉴질랜드 경제적 미래를 위한 베트남과 관계 강화 중요성 강조 특히 베트남을 아시아의 떠오르는 강국으로 평가하며, 양국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 협력 기회 모색 전망 제시</li> </ul>
캄보디아	<p>○ <b>캄보디아, 대중국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오 응우온 앙 캄보디아 광저우 총영사관 상무관의 중국유엔조달협회(CAPUNP) 광저우 개막식에서 캄보디아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 확대 의지 표명. 양국 무역 관계 강화 및 캄보디아 농산물의 중국 시장 접근성 향상 목표</li> <li>- 캄보디아 주요 수출 농산물의 쌀, 캐슈너트, 후추, 망고, 용안, 카사바 등 구성. 2024년 캄보디아 농산물 수출량 1,1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 기록. 농업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li> <li>- 캄보디아의 2024년 상품 수출을 통한 47억 9,000만 달러(약 6조 8,583억 원) 수익 창출과 전년 대비 3% 증가 성과. 캄보디아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이 베트남, 태국, 중국, 한국, 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다변화된 수출 시장 보유</li> </ul>
	<p>○ <b>캄보디아, EU·멕시코와 경제 협력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스 세일라바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국무장관의 2월 26일 EU와 멕시코 명예영사들과 무역·경제 관계 강화 위한 회담 주재. 캄보디아와 EU, 멕시코의 경제 협력 강화와 투자 기회 모색에 대한 의지 표명</li> <li>- 회의에서 EU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 규제 명확화, 유럽과 멕시코 기업을 위한 유망 분야 발굴 등 중점적 논의. EU와 멕시코 지원 하의 공공재정 관리, 세제 개혁,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등 캄보디아 경제 발전과 개혁 노력 논의</li> <li>- 참석자들의 국제 표준 준수를 전제로 한 EU와 멕시코 시장에 대한 캄보디아 수출 촉진 및 무역 흐름 원활화를 위한 전략 모색.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과 관련한 EU와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li> </ul>
	<p>○ <b>캄보디아, 인도와 문화 협력 강화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엥 사코나 캄보디아 문화예술부장관의 2월 25일 반랄바우나 바윳롱 신임 주캄보디아 인도 대사와의 만남에서 문화 분야 협력 방</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b>캄보디아</b></p>	<p>안 논의. 양국의 오랜 문화적 유대관계 강조 및 협력 강화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윳룽 대사의 유·무형 문화유산 포함 문화 협력 중요성 강조 및 메콩강-갠지스강 협력체(MGC) 회원국 간 행사 개최 제안. 양국 간 문화 협력 증진을 위한 추가 양해각서(MOU) 체결 제안</li> <li>- 바윳룽 대사의 캄보디아 예술가들의 인도 문화행사 참여 등 과거 문화 교류의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 기여 평가. 캄보디아와 인도의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향후 문화 협력 전망에 대한 긍정적 평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인도네시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위한 국부펀드 출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2월 24일 새로운 국부펀드 '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라' 출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목표 펀드의 9,000억 달러(약 1,287조 6,300억 원) 이상 자산 운용을 통한 인도네시아 선진국 진입 촉진 목표</li> <li>- 신규 펀드의 정부 예산 절감 통해 마련된 200억 달러(약 28조 6,140억 원) 초기 자금으로 광물자원, 식량 생산,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투입 계획. 로산 로에슬라니 투자부 장관의 펀드 총괄과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의 감독 역할 분담</li> <li>- 전문가들의 신규 펀드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감사원 감사 대상 제외 점에서의 거버넌스 문제 제기. 최근 정부 예산 삭감 정책 촉발 학생 주도 시위에서 신규 펀드에 대한 정부 개입 가능성 우려와 투자자 신뢰 유지를 위한 전문적 감독 필요성 강조</li> </ul> </li> </ul>